

삼성 이병철 회장의 가문과 기업가 정신

이상호 (경상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leejungto@empas.com

... 초 록 ...

기업은 이윤 창출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사고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배치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는 기업인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뿌리는 기업가의 경영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이 없는 기업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흐름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대안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가 중 한 사람으로 이병철 회장을 들 수 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합리 추구, 인재제일주의, 사업보국을 기업가 정신으로 삼았다. 3대 기업가 정신은 충(忠)과 의(義)를 중시하고 재산을 의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령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정서와 이병철 회장 집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가풍(家風)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다.

핵심어 : 소주, 좋은데이, ㈜무학, 최위승, 대흥상사

I. 서 론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의령 출신의 대표적 인물로는 광재우 장군, 백산 안희제 선생 등을 들 수 있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을 일으키자 4월 22일 망우당 광재우는 남명 조식의 제자로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대신해서 싸웠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그의 졸기(卒記)에서는 이때 그가 그냥 은둔한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에 힘써 재산이

몇 만 금이나 되었다고 기록했다.¹⁾ 광재우의 재력은 실제로 작지 않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후 광재우의 전공을 보고한 장계에서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은 그의 집안이 매우 부유했는데 의병을 모집하는 데 재산을 모두 희사(喜捨- 목적을 위해 기꺼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음)했다고 기록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의병활동에 참가한 양반들은 대부분 수백~수천 마지기(斗落)¹⁾의 토지와 200~300명의 노비를 소유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광재우

1)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중초본]」 114권, 광해 9년 4월 27일 신유 13번째 기사 : 前漢城府左尹郭再祐卒. 【(再佑) 以曹植女婿 與金宇顥 鄭仁弘 等爲友. 然不知理學 舉進士不第. 卽棄去力田殖貨 致財累萬.

도 그것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²⁾ 특히 백산 안희제는 임정 첩보 36호의 총책을 맡아³⁾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수시로 전달함으로써 임정의 재정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⁴⁾ 당시 백산무역은 상해 임시정부 운영자금의 60%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의령군 정곡면과 광재우 장군이 태어난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백산 안희제 선생이 태어난 의령군 부림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병철 회장 또한 충(忠)과 의(義)를 중시하고 재산을 의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역적 정서를 어릴 적부터 배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병철 회장 가문을 조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병철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병철회장의 가문

이병철 회장의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호암(湖巖).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정곡면(正谷面) 중교리(中橋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찬우(李贊雨)와 어머니 권재림(權在林)의 2남 2녀 중 막내이다. 16대조가 연산군 때 사화를 피해 이곳으로 낙향한 이후 대대로 이곳에 터전을 이루며 살았다고 한다. 6대조가 정3품인 통정대부 품계를 받는 등 유학자 집안이며, 천석지기 농토를 소유한 대지주 집안이었다.

이병철 회장의 16대조 이계번(李桂蕃)은 경남 의령군 중교리를 은거의 고장으로 삼아 가숙을 이끌고 낙향했다. 이병철 회장의 11대조인 화헌 이종욱(和軒 李宗郁(1553년-1623년))⁵⁾은 남명의 제자인 내암 정인홍(來庵 鄭仁弘)의 제자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했다.⁶⁾ 남명의 제자인 지봉 이종영(芝峯 李宗榮)⁷⁾과는 제종간이다.⁸⁾ 『조선왕조실록』에는 의령 사람 이종욱(李宗郁)이 상소를 올려 ‘정인홍과 조식을 위해 무함(誣陷)을 밝히다’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⁹⁾

10대조 후대부터는 정치와는 무관한 선비로서 생활을 이어온 것 같다. 이병

2) [네이버 지식백과] 광재우 [郭再祐] - 임진왜란의 대표적 의병장, 홍의장군 (인물한국사)

3)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80권, 2007, 99쪽.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496&cid=59011&categoryId=59011>.

5)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희문(希文), 호는 화헌(和軒)이며, 의령에 거주하였다. 정인홍의 문인이다.

6) [http://dh.aks.ac.kr/~red/wiki/index.php/%EC%9D%B4%EC%A2%85%EC%9A%B1\(%E6%9D%8E%E5%AE%97%E9%83%81\)](http://dh.aks.ac.kr/~red/wiki/index.php/%EC%9D%B4%EC%A2%85%EC%9A%B1(%E6%9D%8E%E5%AE%97%E9%83%81))

7) 현 경상남도 의령군의 궁류면 다현리와 봉수면 청계리 경계에 있는 만지산(晩芝山)의 봉우리인 듯하다. 이종영은 만년에 만지산에 살면서 호를 지봉이라고 하였다.

8)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235A_0060_010_0070

9) 『朝鮮王朝實錄』 「광해군일기[중초본]」 42권, 광해 3년 6월 19일 정해 3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oa_10306019_003\(2022.10.27.\)](https://sillok.history.go.kr/id/koa_10306019_003(2022.10.27.))

철 회장의 조부(祖父) 이홍석(李洪錫 호는文山, 1838~1897년)은 1838년(헌종 4) 6월 28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는 정성을 다하여 3년 동안 시묘를 살았다. 이에 사람들이 하늘도 감동할 효심이라고 칭찬하였다. 독서하기를 즐기고, 행실이 돈독하였으며, 산수(山水)를 벗 삼아 시를 지었다. 또한 재능이 있는 자제들을 모아 학문에 대해 강론하기를 즐겼다.¹⁰⁾ 조부 이홍석(李洪錫)은 당시 영남의 거유(巨儒)로 일컬어지던 허성제(許性齊)의 문하생으로 학문에 조예가 깊어 시문과 성리학에 매우 능했고 이재(理財)에도 밝아 천여 석을 추수하는 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병철 회장이 이재의 감각이 뛰어나고 유교적 사고를 생활신조로 하고 있었던 것은 조부 이홍석의 사고와 이재의 재능이 전승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5세부터 조부가 세운 서당 문산정(文山亭)에서 5년 남짓 동안 지도자론인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인격자가 갖추어야 할 수기(修己), 수신(修身)의 원전인 논어(論語)를 통독하였고 그 때 공부한 한학은 그의 인격 형성의 근원이 되었다고 한

다.¹¹⁾ 이병철의 조부 문산 이홍석(文山 李洪錫)은 남인(南人)의 대표적인 학자 성제 허전(性齋 許傳)의 제자이다. 허전은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선조가 초당 허엽(草堂 許曄), 악록 허성(岳麓 許箴) 등인데, 허성은 북인(北人) 계열로 남명(南冥)의 제자이다. 이병철의 형 이병각(李秉珪)은 근세 영남의 대학자 회봉 하겸진(晦峯 河謙鎭)의 사위이다.

이병철 회장의 부친은 이찬우(李繼雨)는 서재필·이승만·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¹²⁾ 부친인 이찬우는 단정하고 근엄하였으나 자녀에게는 인자하였으며 공자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켰고, 퇴계학에도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서예도 능하였다고 한다.¹³⁾ 생전에 꾸중 한번 하신 일이 없는 부친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생활 윤리 중에서 특히 신(信)을 강조하셨고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고, 창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성이 신용을 기업의 생명으로 삼아온 것은 부친의 유훈이 그 뿌리라고 이병철 회장은 술회했다.¹⁴⁾ 그와 함께 이찬우는 아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c_A1838_1_0022084

11) 김영래,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경영(학)의 연구」, 『경영사학』 제26집 제1호(통권 57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1, p.8.

12) 삼성회장비서실, 『삼성 60년사』, 삼성, 1998, 13쪽.

13)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5쪽.

14)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10쪽.

들 이병철이 중동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처세훈으로 삼도록 했다.¹⁵⁾ 모든 일은 숨기려고 해도 때가 되면 드러나기 때문에 매 순간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면서 후회없는 삶을 살도록 한 것이다.

이병철은 5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으며, 10살 되던 해 지수보통학교에 편입할 때까지 『千字文』, 『資治通鑑』, 『論語』, 『孟子』 등을 공부하였다. 특히 『論語』가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가장 감명을 받은 책 혹은 좌우에 두는 책을 들라면 서슴지 않고 『論語』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마친 책이 바로 『論語』이다. 나의 생각이나 생활이 『論語』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족한다.¹⁶⁾

『論語』는 공자와 관계가 있는 말들 뒤에 그의 제자들이 논찬하여 이룩한 유교 경전이다.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인격’으로 꼽았던 이병철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論語』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고, 지엽적인 경영 이론보다 인간의 마음가짐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고자 하였다.¹⁷⁾

Ⅲ.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정신

삼성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이치에 부합되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합리(合理) 추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재제일주의(人才第一主義)’, 기업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을 들 수 있다.

1. 합리(合理) 추구

합리(合理)란 이치에 부합하거나 도리에 합당하고 논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호암 이병철 회장은 평소 “자연이나 모든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에도 이치가 있고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합리주의 정신을 강조했다.¹⁸⁾ 이치에 맞게 기업을 경영하면 선순환을 하여 기업이 발전하게 된다. 덧붙여 이병철은 “만사에는 先後가 있고 기업 경영에는 비약보다는 진

15)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9쪽.

16)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269쪽.

17)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270쪽.

18)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 중앙일보사, 1989, 102쪽.

보”라는 신념으로 원칙을 존중하며 단계에 맞게 나아가야 함을 제시했으며,¹⁹⁾ “말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²⁰⁾는 『論語』 「子路」편의 정신을 인간관계의 요체로 삼았다. 이는 굴곡의 역사 속에서 삼성을 세우고 다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내외 정세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며 투기는 절대로 피하고 직관력을 키워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는 경영 원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²¹⁾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가 국내외 정세에 대한 예리한 상황 판단과 통찰력, 직관력,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측력이 없으면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변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병철은 1960년대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그룹 각 사에 대한 면밀한 경영 진단을 정례적으로 의뢰하여 경영과 조직의 합리화를 이루었으며 기업 경영의 토대를 마련했다.²²⁾

이병철은 아들 이건희에게 『논어(論語)』를 읽어 보라는 부탁과 함께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되던 37세 때 ‘傾聽’을 평생 좌우명으로 남겼다. ‘傾聽’은 주변 사람들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

울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진심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잘 들을 수 있어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는 그 기업에 소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말을 하기 전에 얕은 얼음을 밟듯이 신중해야 하고 주변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청(傾聽)의 철학적 바탕은 남명이 강조했던 경(敬) 수양을 깔고 있다. 경청(傾聽)하기 위해서는 경청(敬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敬)은 얕은 살얼음을 밟듯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마음을 오롯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친구가 말을 할 때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듣고 난 후에는 상대방 마음까지 헤아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 하는 것이 경(敬)에 해당한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가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모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는 것이다.²³⁾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집중하여 들

19)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 중앙일보사, 1989, 102쪽.

20) 『論語』 「子路」第 20章: 敢問其次曰言必信行必果硜然小人哉.

21) 삼성인력개발원, 『삼성의 역사와 핵심가치』, 2005, 82 ~ 83쪽

22)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230쪽.

23) 『論語』 「子罕」第4章: 毋意 毋必 毋固 毋我.

어 줌으로써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지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며, 진심을 다해 말하게 된다. 기업가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되면 진심어린 말과 아첨하는 말을 가리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소중한 덕목이다.

2. 인재제일주의

이병철 회장은 “모든 일의 시초는 인간이고 모든 일의 중심은 인재이며 자신이 40여 년 동안 키워온 것도 인재”²⁴⁾라고 강조했다. 인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관심과 사랑, 믿음이다. 어릴 적 이병철의 어머니는 마을에 해산하는 집이 있으면 미역과 쌀을 보냈고 양식이 떨어진 집에는 곡식을 주었으며, 춘궁기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했다.²⁵⁾ 어머니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온 마을이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었고, 기업가가 되었을 때는 가족적 분위기 유지를 회사 운영 기본 방침으로 삼도록 했다. 가족적 분위기 유지는 우리 모두의 회사라는 마음을 지니도록 했으며, 능력에 따른 대우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해 사기 진작과 구성원 누구나 투자액

에 비례해서 배당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존공영의 정신을 강조했던 것이다. 특히 이병철은 신상필벌(信賞必罰)²⁶⁾을 내세워 회사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공적이라도 상을 주어 취하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태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일벌백계(一罰百戒)로서 엄하게 징계하였다.²⁷⁾ 이러한 기본 방침을 제대로 정착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행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쌓일 때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은 빛을 보게 되고 기업의 미래는 밝아진다.

이병철은 단아하면서도 단호한 외모처럼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믿음을 중심으로 기업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을 탁월한 안목으로 얻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한 것이다. 그는 종종 “나는 德은 없지만 사람복(人福)이 많은 사람”²⁸⁾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에게 “비록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됨”을 가르친 것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²⁹⁾

24) 호암 재단, 『호암 어록』, 1997, 74 ~ 79쪽.

25)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4~5쪽.

26) 이견회는 상 받을 사람은 당연히 상을 주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을 주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장세진, 『삼성과 소니』, 살림Biz, 2008, 281쪽

27)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 중앙일보사, 1989, 227 ~ 228쪽

28) 야지마 긴지·이봉구, 『삼성 경영철학』, W미디어, 2006, 103쪽.

이병철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치밀한 성격을 지닌 기업가였다. 치밀한 성격을 지닌 이병철이었기에 일단 의심을 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의심을 넘어설 때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일임을 하게 된다. 의심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철학은 이병철 회장이 즐겨 사용했던 다음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사람이 의심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거든 의심하지 말지니라.³⁰⁾

위의 말은 일본 전기의 창업주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정경숙에서 한 강연에서 한 말로도 유명한데,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나오는 말이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병철 회장의 지론이었다.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의심하면 아래 사람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 윗사람의 눈치와 검증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래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게 되고 조직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윗사람이 아래사람에게 믿고 맡겼을 때 아래사람은 윗사람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회사 또한 발전하게 된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을 자신과 삼성을 동일시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심혈을 기울였다.³¹⁾ 이병철은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참석하여 인품을 보았다. 마지막 면접에서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 최종 선발을 했다³²⁾는 것도 기업에 필요한 인재 채용에 꼼꼼한 검증을 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병철은 면접에 높은 비중을 두고 인품과 조직 문화에 맞으면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았고,³³⁾ 엄격한 信賞必罰의 원칙과 덕망과 인격을 갖춘 유가적(儒家的) 인재를 선호했는데³⁴⁾, 그가 기대한 인재 또한 자신의 업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재를 말한다.³⁵⁾

29)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10쪽.

30) 『明心寶鑑』 「省心 上」 : 疑人莫用 用人勿疑.

31) 권경자, 「儒學으로 分析한 三星經營哲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53쪽

32) 1956년 삼성물산이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 이래 1978년까지 사원 선발 최종면접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병철 회장이 O를 친 사람은 반드시 채용, < > 표시를 하면 면접 위원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람(이게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X표는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후문이다. 회장 옆에 일본의 골상학(骨相學) 전문가가 동석해 사람을 관별한 적 있으며,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내의 유명 관상가가 동석한 적도 있다고 한다.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관상가가 강연 자리에서 밝혀 세간에 알려졌다.

33) 전용옥·한정화,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김영사, 1994, 92쪽

34) 이병철, 『호암어록』, 호암 재단, 1997, 67쪽

35)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 중앙일보사, 1989, 213 ~ 214쪽

인재 중심의 기업가 정신은 후계자 및 CEO 선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병철은 최고 경영자의 덕목으로 덕망을 갖춘 인격자, 탁월한 지도력, 신망을 받는 인물, 풍부한 창조성, 분명한 판단력, 추진력, 책임감을 중시했다.³⁶⁾ 그 결과 셋째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아들이건희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연차를 무시하고 과격적으로 승진시켰으며³⁷⁾ 이병철 회장이 아꼈던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계속하여 CEO자리에 두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능력에 따른 대우’는 인재를 중시하는 회사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3. 사업보국(事業報國)

사업보국(事業報國)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사업을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삼성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이며,³⁸⁾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 광복 후 혼란, 6·25전쟁의 세파에 담금질되며 가슴에서 우러나온 기업가 정신이다.³⁹⁾

삼성 상회가 번창하자 이병철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 양조라는 회사가 매물로 나오자 매도자가 원하는 돈을 모두

주고 매입했다. 허가가 제한되어 있던 양조업이었기에 신규 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양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역할을 하였다. 양조업이 날로 번창하자 이병철은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 때 친구 채현병은 작정을 하고 “자네가 양조업으로 번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주에서는 동포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하면서 총 들고 싸우고 있네!”라고 충고를 한다. 친구 채현병의 충고에 정신을 차린 이병철은 광복이 될 때까지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만주로 보냈다.

광복 후 이병철은 양조업과 무역업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국가발전의 공헌, 사업보국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다. 그는 기업을 통해 고용과 생산 증대를 꾀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민족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요 기업가의 본분이라 생각했다.⁴⁰⁾ 기업을 하는 목적이 축재가 아니고 끝없는 도전과 자아실현 내지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공헌, 사업보국이라고 생각했던 이병철은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및 대구

36)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9186, 246쪽.

37) 삼성, 『삼성 新經營』, 삼성 신경영 실천위원회, 1997, 139쪽

38)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 중앙일보사, 1989, 5쪽

39) 조동성 외, 『한국의 자본주의의 개척자들』, 월간조선사, 2003, 411쪽.

40)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40쪽.

대학교 인수와 같은 육영 사업과 삼성 문화 재단 발족, 아산 현충사 중건사업 참여, 국민 계몽 영화 제작, 효행상 제정, 삼성 장학회 설립 등을 비롯한 공익사업을 통해 인륜을 밝히고 道義 文化를 드높이고 복돋우고자 하였다. 이병철은 새로운 사업을 선택할 때 ‘국가적 필요성’, ‘국민의 이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삼았다.⁴¹⁾ 그의 ‘사업보국주의’는 일본 마쓰시다의 ‘산업보국’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마쓰시다의 ‘산업보국’은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인권이나 이익보다 우선하는 일본의 집단주의의 질서를 반영한 기업가 정신이다. 이병철의 ‘사업보국’은 나와 국가를 하나로 본 한마음에서 표출된 기업가 정신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⁴²⁾

IV. 결론

본 연구는 삼성 이병철 회장 가문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성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은 지역적 정서, 가풍(家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이견회 - 이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견회는 1993년 이병철 회장의 인재제일·합리 추구·사업보국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을 창업 이념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인재와 기술을 바

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라고 천명했다.

기업가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구성원을 선발하는 안목과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인재를 중시하고 합리를 추구하는 정신은 오늘날 기업인들이 본받아야 할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기업가정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갑질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남명이 평생 강조했던 경(敬) 수양과 의로운 행동의 실천이 필요하다. 기업인은 항상 경(敬)수양을 통해 안으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가지런하고 엄숙함이 절실하게 하도록 하면서 주변의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내면을 밝게 해야 한다. 내면이 밝아지면 바깥의 외물에 쉽게 동요되지 않게 되고 시의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게 된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후계자들이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병철 회장이 중시했던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도 그런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윤 창출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합리적인 사고와 기업에 필요한

41) 이병철, 『湖巖自傳』, 중앙일보사, 1986, 236쪽.

42) 권경자, 「儒學으로 分析한 三星經營哲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05쪽

인재를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배치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는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잘 베푸는 것도 기업인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그런 기업인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원전류

『論語』 『孟子』 『呂氏春秋』 『明心寶鑑』 『朝鮮王朝實錄』

· 저서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의령의 인물과 학문』, 진주 : (도서출판) 화인, 2012.

남명학 연구원, 『망우당 판재우』, 서울 : 예문서원, 2014.

북한연구소, 『北韓』 4월호, 2007.

삼성, 『삼성 新經營』, 서울 : 삼성 신경영 실천위원회, 1997.

삼성, 『호암의 삶과 사상』, 서울 : 삼성인력개발원 정신문화연구소, 1994.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삼성인력개발원, 『호암의 삶과 사상』,

서울 : 삼성, 1994.

삼성회장비서실, 『삼성 60년사』, 서울 : 삼성, 1998.

야지마 긴지·이봉구, 『삼성 경영철학』, W미디어, 2006.

이병철, 『湖巖自傳』, 서울 : 중앙일보사, 1986.

이병철, 『호암어록』, 서울 : 호암 재단, 1997.

장세진, 『삼성과 소니』, 서울 : 살림 Biz, 2008.

전용욱·한정화,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서울 : 김영사, 1994.

조동성 외, 『한국의 자본주의의 개척자들』, 서울 : 월간조선사, 2003.

KBS인사이드아시아 유교 제작팀, 『유교 아시아의 힘』, 고양 : 예담, 2007.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80권, 서울 : (주)갑우문화사, 2007.

· 논문

권경자, 「儒學으로 分析한 三星經營哲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영래,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경영(학)의 연구」, 『경영사학』 제26집 제1호(통권 57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1.

서청석, 「성장에 걸맞는 건전한 윤리교육 필요」, 『교수신문』 603호, 2011.5.30..

- 오미일, 「일제 시기 백산상회(白山商會)의
창립과 변천」 『영남학』 제26권, 경북
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14
- 이상호, 「유교(儒敎)의 경제윤리에 관한 연
구(研究) -인(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 108권, 한국윤리학회,
2016..
- 이종구·김호원, 「삼성의 인재경영 변천
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호암 이병철의 경영이
념 중심으로 - 」, 『경영사학』 제
27집 제2호, 한국경영사학회, 2012.
- 이한구, 「산업화기(1960~70) 한국 기업
가 정신과 유교」, 『경영사학』
제30집 제1호, 한국경영사학회,
2015.
- 조남국, 『栗谷思想에 나타난 經濟倫理의 현
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제
35권, 한국윤리학회, 1996.